

- 주요 뉴스: 미국 4월 생산자물가 예상 상회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증가
 - 미국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 및 반도체 등 핵심제품 관세 대폭 인상
 - 독일, 4월 소비자물가 예상 부합 및 5월 ZEW 경기기대지수 상승
 - 일본 재무부, 국채 매입 축소 후 필요 시 금리 변동에 대응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PPI 지표가 발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며 강세로 마감
 - 주가 상승[+0.48%],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파월 의장의 중립적 발언, 전기차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주 및 통신주 강세 등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파월 의장의 4월 PPI 실적 혼재 평가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3% 상승, 엔화 가치는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월 PPI 수정치 하향조정 등이 작용해 하락
독일은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영향 등으로 4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63.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5.8원, 0.24% 상승). 한국 CDS 약보합

		5/14일	5/13일	전일대비			5/14일	5/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246.7	5,221.4	0.48%	국채 금리 10y	미국	4.44%	4.49%	-5bp
	유럽	521.65	520.86	0.15%		독일	2.55%	2.51%	4bp
	중국	3,145.8	3,148.0	-0.07%		영국	4.17%	4.17%	-0bp
	일본	38,356	38,179	0.46%	CDS 5y	한국	35bp	35bp	-0bp
	한국	2,730.3	2,727.2	0.11%		중국	62bp	64bp	-2bp
	달러지수	105.01	105.22	-0.19%	위험 지표	EMBI+	-	325bp	-1bp
환율	유로화	1.0819	1.0790	0.27%		VIX	13.42	13.60	-1.32%
	엔화	156.42	156.22	-0.13%		WTI유	78.02	79.12	-1.39%
	위안화	7.2337	7.2334	0.00%	원자재	구리	495.4	480.5	3.10%
	원화	1,369.1	1,368.2	-0.07%		금	2,358.1	2,336.3	0.9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4월 생산자물가 시장예상 상회.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증가

- 노동부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5% 상승. 시장예상(0.3%)을 상회.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은 2.2%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치. 근원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상승해 시장예상(0.2%)을 상회
- 파월 연준 의장은 4월 PPI가 예상을 웃돌았지만 3월 수정치(-0.1%)는 하향조정되면서 혼재된 것으로 평가.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이나 1분기 중 예상을 상회한 수치 감안 시 연초 대비 이에 대한 자신감은 낮아졌다고 부언
- 뉴욕 연준의 미국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및 5년 후 기대 물가가 각각 연율 3.26%(전월 3%)와 2.82%(2.62%)로 연준 목표치(2%)를 상회. 1년 후 주택 중위가격 상승률은 3.3%로 예상돼 '22.7월 이후 최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 및 반도체 등 핵심제품 관세 대폭 인상

-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7.5%→25%/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반도체(25%→50%/내년), 전기차(25%→100%/연내)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
-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핵미사일 기지 인근에 중국 암호화폐 채굴업체 마인원 파트너스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매각을 명령
-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관세 인상 발표 후 중국이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cheating)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희망한다고 강조. 한편 트럼프의 대선공약인 보편적 관세 적용 시 미국 가계의 연간 지출이 평균 \$1.5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

■ 독일, 4월 소비자물가 예상 부합 및 5월 ZEW 경기기대지수 상승

-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2% 상승해 3월 및 시장예상과 동일. 전월 대비로 0.5% 상승(3월 0.4%). 연방통계청은 에너지와 식품가격 하락이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를 주도했다고 평가
- 5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47.1로 전월(42.9) 대비 상승. 시장예상(46.3)도 상회. ZEW는 유로존 전역과 핵심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평가 개선에 힘입어 경기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 서명

- 러시아 생산 저농축 우라늄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법안은 대통령 서명 90일 후 발효. 다만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 중단 시 원자로 운영이 불가능한 일부 미국 전력업체에 2028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할 방침
- 한편 14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예고 없이 방문해 러-우전쟁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사를 재확인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1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 일본 재무부, 국채 매입 축소 후 필요 시 금리 변동에 대응할 방침

- 순이치 재무상은 일본 국채 금리는 시장에 따라 결정되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부언.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밀한 협력 중요성도 재차 강조. 금리인상 기대감 증대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9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

■ 2024 카타르경제포럼 개막. 중동 지정학 및 에너지 전환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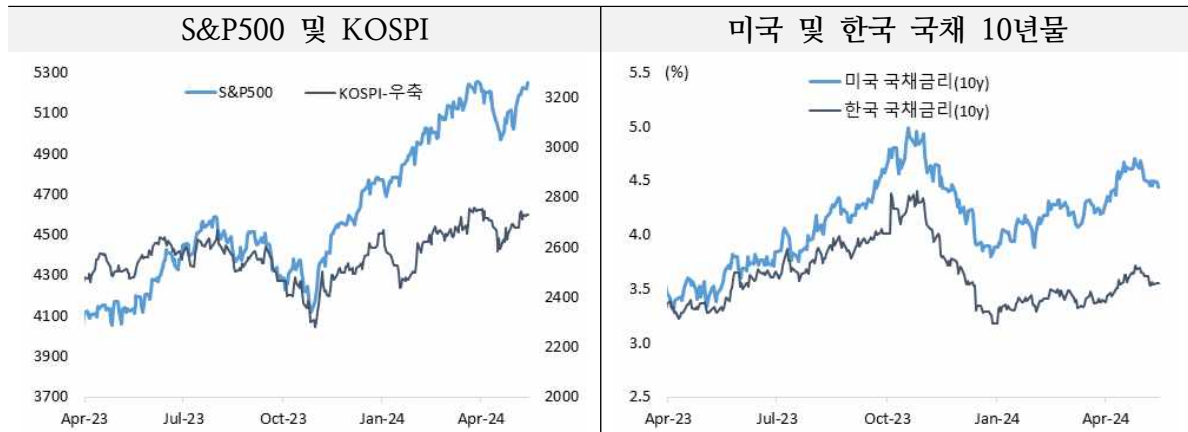
- 14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다시 만드는 세상: 불확실성의 해를 헤쳐 나가다' 주제로 3일간 진행.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협상은 교착상태이며 최근 라파 상황이 협상 후퇴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소비자물가 및 소매판매,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 유로존 1Q GDP, 프랑스 4월 소비자물가,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망
- 중국 1년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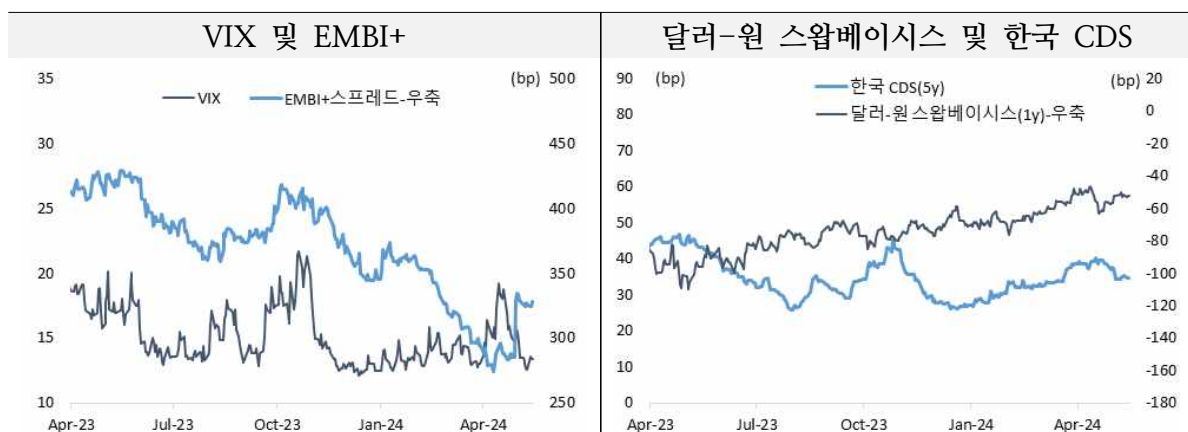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6, E-mail leesw@kcif.or.kr